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주요 규제 동향
- I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주요 규제 동향

2022.9.6 (화)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구성

- ▶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
- ▶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공과(功過)에 대하여 기업·회계업계측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를 선정
 - * ①표준감사시간제, ②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③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 ▶ 참석자 주요 발언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
-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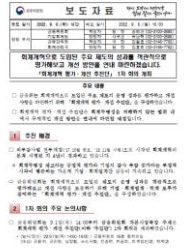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음
-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이 선행된 후에 제도 개선 논의 필요

학계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야 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함
-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음

- ▶ 추진단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예정)하여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다운로드



QR 코드



↓ 별첨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 별첨 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I. 주요 규제 동향

2022.9.13 (화)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되었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
- ▶ 최근 5년간('17~'21)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현황

위반행위	3대			시장질서 교란	합계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건수(개)	119	64	81	10	274
비중(%)	43.4	23.4	29.6	3.6	100.0

- ▶ 현재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음
- ▶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 + 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요약표

구분	현행 사후공시 (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자	임원&주요주주	임원&주요주주
대상증권	특정증권 등	특정증권 등
기한 (냉각기간)	소유상황 변동일 기준 5영업일 이내	매매예정일 기준 최소 30일 전
소규모 거래 예외	변동수량 1천주 미만 & 취득·처분금액 1천만원 미만	거래수량 총발행주식 1% 미만 &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공시내용	매매, 그 밖의 거래 (특정증권 등의 소유현황)	매매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
적용예외	-	외부요인 (증여·상속 등)
변경·철회	-	제한적 허용 (회생·파산절차 개시 등 객관적 사유 요)
관리·감독	금감원 보고	금감원 보고
제재	형벌, 행정조치 등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다운로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 공시대상 범위와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방법, 공시예외 등
- 공시대상 범위와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방법, 공시예외 등
- 공시대상 범위와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방법, 공시예외 등

QR 코드



I. 주요 규제 동향

2022.8.30 (화)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지정제도의 주요내용)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방법 등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를 안내

❖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및 지정감사인 예시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정사유	(가)사유발생 (3년)	(나)사유발생 (3년)			
(가)사유		감사인A	감사인B		
		총 지정감사기간 4년			
(나)사유			감사인A		감사인C
		총 지정감사기간 4년			

-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2.10월부터 적용예정인 외감 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

* 외감규정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

주요 문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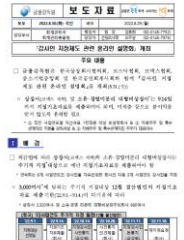
2022 사업연도를 기 지정받고 금년에 2023 사업연도를 다시 지정받는 경우, 2년차 감사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주기적·직권 지정 대상회사는 (주기적·직권)지정사유 발생시 3개 사업연도를 지정하며, 이 경우 2년·3년차 감사인은 신규 지정사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1년차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지정군, 지정제외점수 무관)으로 우선 지정됨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된 경우,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 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재무기준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법§11①6호) 해당 여부는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해당 재무기준은 합병 전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함

다운로드



QR 코드



I. 주요 규제 동향

2022.9.1 (목)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
- ▶ 다만, 시행령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등 시행령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 개최

경영계(경총, 중기중앙회) 의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입법 보완이지만, 당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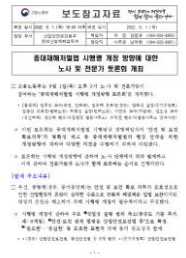
- ▶ 시행령 개정 관련 논의사항
 - ①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예: 6개월)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특정
 - ③ ‘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의 삭제 등 필요
- ▶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면 하위법령에 규정 할 수 있는 사항 논의
 - ④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 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신설해야 함을 주장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의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이 낮지 않고,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지 시행 1년도 안 된 법령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 ▶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 ① 직업성 질병의 범위 확대(뇌·심혈관계 질환 등)
 -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포괄적 규정 필요 (특히, 근로기준법 포함)
 - ③ 위험성 평가 시 종사자의 참여 보장 등이 필요함을 주장함
- ▶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의 경우 낮은 신뢰도로 인해 현재 전반적인 제도 개선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갈음하자는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

다운로드



QR 코드



I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딜로이트 인사이트

소비재산업 내 책임감 있는 지속가능 경영활동 추진

- 소비재산업에서 환경부문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본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함
- '기업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으로부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로의 전환은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임과 동시에 기업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가 현재로서 적절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다른 생태 위기에 대해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주는 경고가 점점 더 긴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합류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소비재기업들의 대응방법은 포장 및 폐기물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소비재 제조업체, 호텔·관광업, 자동차 제조업체, 소매업체, 친환경인증(LEED 제도) 건물 건설, 新 전기 자동차 도입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목차:
 - 서문
 - ESG 中 G를 수단으로 E에 도달
 - 거버넌스 탐색
 - 선발주자와 후발주자
 - 책임감(Accountability) 부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윤
 - 방해요소
 - 책임감을 동반한 지속가능성으로의 변화

다운로드



QR 코드



I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딜로이트 인사이트

새로운 공급망 균형

- 코로나19 상황은 고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음
- 전세계의 물동량이 침체된 항구와 텅 빈 상점의 매대는 회사가 비용 절감이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공급망 관리에 또다른 중요한 요소인 민첩성에도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공급망 관리자들이 모범적이라고 칭하는 민첩성은 정량화 하기 어려움에 따라 위기 직면 시 긴급한 사항으로 취급되지 않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공급망 관리자들은 지표 및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뚜렷한 공급망 성과(비용, 서비스, 품질, 재고, 자산성과 등)에 보다 가시적인 요소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목차:
 - 서문
 - 민첩한 공급망 사례
 - 민첩한 공급망 초래 요소
 - 삼극(tripolar) 전략
 - 새로운 시대의 공급망

다운로드

Deloitte
Insights



The new supply chain equilibrium
In the wake of COVID-19 and adding geopolitical risks as a result of the conflict in Ukraine, companies around the world are opening their supply chains for resilience and efficiency. To really thrive, they also should focus on agility.
Source: Deloitte & Touche LLP

QR 코드



2021년 Global Boardroom Program

감사위원회 프론티어 - 기후변화 과제 해결

-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선도사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루며, 40개국의 350명 이상의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사회 및 회사가 직면하는 도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기업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감사위원회에게 조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음
- 목차:
 - 서문
 - 감사위원회 서베이
 - 기후변화와 감사위원회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보고 배경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
 - 질의사항
 - 감사위원회 프론티어 소개

요약본 보기

다운로드

Deloitte



The Audit Committee Frontier - addressing climate change
Source: Deloitte & Touche LLP

QR 코드



I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ternal Auditor Assessment Tool: A Tool for Audit Committees 2021년 3월판

[참고자료] 외부감사인 평가표(Center for Audit Quality)

- 2021년 3월, 미국의 Audit Committee Collaboration이 개발하고, Center for Audit Quality가 발표한 평가표를 국내 제도를 고려하여 번역한 자료이며, 본 평가표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신규 선임하거나 기존 외부감사인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음
- 상장사 및 금융사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신뢰성 감독 및 외부감사인 선임·보수 결정·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음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감독과 같은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투자자 및 규제기관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외부감사인 유지 여부를 권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외부감사인이 의무를 다 하는지 평가해야 함
- 평가는 다음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감사 수행팀의 감사업무의 품질과 자원의 충분성
 - 회계법인 차원의 감사업무의 품질과 자원의 충분성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 외부감사인 평가는 당기 용역 수행(발표, 보고, 공식회의 내 대화, 비정기회의 등) 기간 동안의 감사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연도 평가(evaluation) 전에는 통지해야 함
- 외부감사인과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에게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사 임직원의 의견 수렴 질문지'를 활용하여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업지배구조

- 총수 지분 3.7%로 기업 지배... 공정위 “해외 계열사 감시 필요” [뉴시스]
- 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 의안 통과... “중복 지배구조 단순화” [농업경제신문]
- 대기업집단 23곳, 해외 계열사로 지배력 뒷받침...비영리법인도 ↑ [연합뉴스]
- “지배구조, 배당, 국제정합성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인” [조세일보]
- 매각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팍스넷뉴스]
- 코스피 50대 기업 ‘62%’가 대표-이사회 의장 분리 [더벨]



이사회·감사위원회

- 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기업 여성 등기이사 비율 2배 이상 벌어져 [이투데이]
- 코스피200사 중 감사추 173개사 설치.. 장기 재직 줄어 [조세일보]
- 오투기, ‘독립성 제고’ 달라진 이사회, 사외이사 과반·성별 다양성 확보, ESG경영 가속화 조직 구축 눈길 [더벨]
- 사외이사 겸직 이사회 의장 기업 현황 [더벨]
- 트러스톤 “법원, 불법 내부거래 의혹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 [조선비즈]
- 기업·회계업계 표준감사시간제 이견...점점 찾을지 미지수 [서울경제]



회계투명성

-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등 과제 추진” [뉴시스]
- 외부감사제도 개선 추진...기업 부담 경감 기대 [정보통신신문]
- “감사부담 커져” “회계 투명성 제고”...기업·회계업계, 신외감법 두고 갈등 [한경닷컴]
- 미래에셋만의 안정적인 혁신 성장, ‘투명한 기업문화’로 쌓았다 [아주경제]
- “공공기관 회계감사 투명성 높이려면...” [파이낸셜뉴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사)감사위원회포럼 - 백인규 딜로이트 ESG센터장 “현 ESG는 과도기...감사위원회 ‘감독 기능’ 중요성 커져” [한국농어촌방송]
- “자연·기후 놓치면 미래고객 잃는다” 딜로이트 ‘훗 ESG 전문가 니콜라 위어’의 일침 [조선비즈]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글로벌 모빌리티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글로벌 건설강자 2021 보고서 발표 [조세일보]
- 딜로이트 후 리더 “미래차 부품 공급망은 수직형 아닌 네트워크형” [조선비즈]

III. 국내외 뉴스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장 “중대 회계 부정, 사후적발·제재 엄정하게 하겠다” [연합뉴스]
 - “기업 인증부담 확 줄인다”...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전기신문]
 - “규제되지 않은 환경... NFT 둘러싼 부정행위와 사기에 대한 위험” [아이티데일리]
 - 제품안전관리원·한수원·발전5사, 부정성적서 조사 협력 [연합뉴스]
 - ‘분식회계’ 소액주주들 손해배상소송 최종 승소 [국민일보]
-



규제 동향

- 금융위, ‘회계개혁추진단 1차 회의’...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손본다” [이투데이]
 -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 바뀌지 않아” [뉴시스]
 - 금감원, 손보험회에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 요구 [매일경제]
 - “ESG 공시 제도...효율적 기준 마련해야” [이데일리]
 -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 [연합뉴스]
 - 금융위, 상환전환·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도입 [아시아경제]
 - 도입까지 4개월 ‘준비 한창’...보험업계에 가져올 변화는 [위키리크스]
 - 금감원, 국내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美 실리콘밸리서 IR [이투데이]
-



M&A

- ‘오징어 게임’ 룰로 보는 M&A 기업가치 결정 [연합인포맥스]
- 상반기 야태 M&A 코로나 이전 수준...한국은 해외 기업 인수 늘어 [조선비즈]
- “M&A시 일반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해야...피인수 기업에 대한 주주보호절차 필요” [아주경제]
- 아마존, 울들어 4번째 M&A... “긴축發 흑한기는 기업인수 적기” [한경닷컴]
- 美 “안보위협 M&A 차단”... 中과 거래 韓기업, 美투자 중단 될 수도 [동아일보]

V. 주요 행사

신뢰 및 ESG 관련 서베이

글로벌 서베이 주제	신뢰 및 ESG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
실시기간	2022년 9월 30일까지
소요시간	15분 내외

설문 참여

QR 코드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구독자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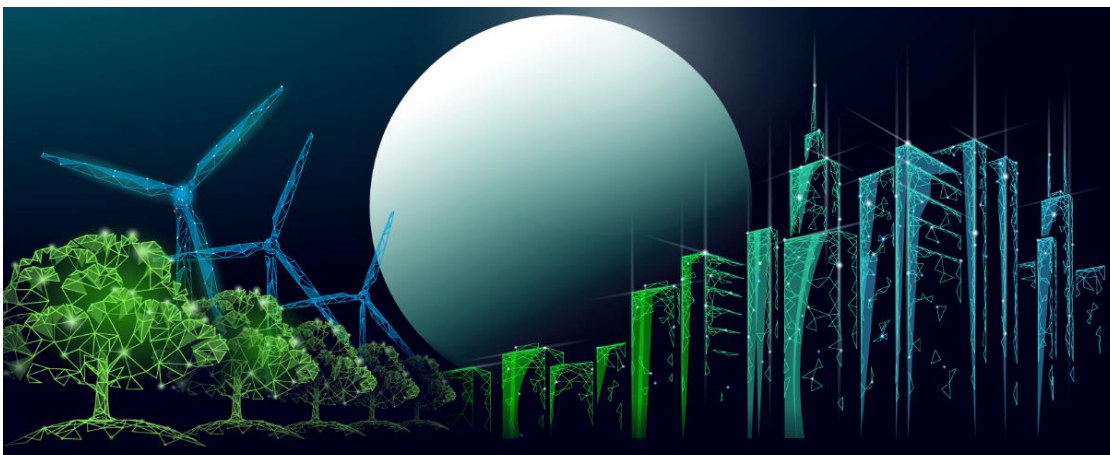
금번에 진행하고 있는 최신 이사회 프론티어 주제와 관련한 서베이에 참여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글로벌 서베이에서는 이사회 주요 안건인 '신뢰 및 ESG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문이드릴 예정으로, 충실한 서베이 결과를 얻기 위해 신뢰 및 ESG 관련 서베이에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응답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이며, 원하시는 경우 설문결과 보고서 및 관련 주제에 논의하는 웨비나에 초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는 성과를 강화하고 충성도, 브랜드 인식 및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수준의 역량(능력 및 신뢰성)과 올바른 의도(인간성, 투명성)를 입증하는 조직은 고객, 직원, 규제 기관, 주주, 생태계 파트너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1개 이상의 기업 이사회에 소속된 경우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에서의 활동을 고려하여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본 익명 서베이는 이사회 안건 및 활동에서 신뢰가 어느 정도 우선시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서베이의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5분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서베이 링크로 연결됩니다.](#) (국문 문항 제공)

(9월30일 마감, 15분 소요)



V. 주요 행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2년 제3회 정기 포럼』 개최 결과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9월 14일 오전 7:30 ~ 9:30 (조찬포럼)		
장소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 (6F)		
참가대상	감사 및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접수		
프로그램	사회: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이사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8:10 ~ 8:45	주제1.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백인규 한국달로이트그룹 ESG센터장 및 이사회 의장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다시보기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수강" 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



개회사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이사

- 2018년에 설립된 감사위원회포럼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 제3회 정기포럼의 아젠다는 “감사위원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현황 및 제언”으로 구성
- ESG는 국내외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경영진 및 주주는 지배구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ESG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함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되던 관행과는 다른 기업관, 기업지배구조 정립 및 사회적 책임의식의 함양이 요구되고 있음

환영사 장석일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며 1-2년 사이 국내 지속가능성 기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1년 11월 IFRS 재단 내에 설립되었고, 한국 측 위원도 한 명 선임되었음
- 그린워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ESG 경영성과를 외부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있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ESG 운영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 적극 감시할 필요가 있음

*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 환경주의' 또는 '위장 환경 운동'

V. 주요 행사

(계속)

Session 1 -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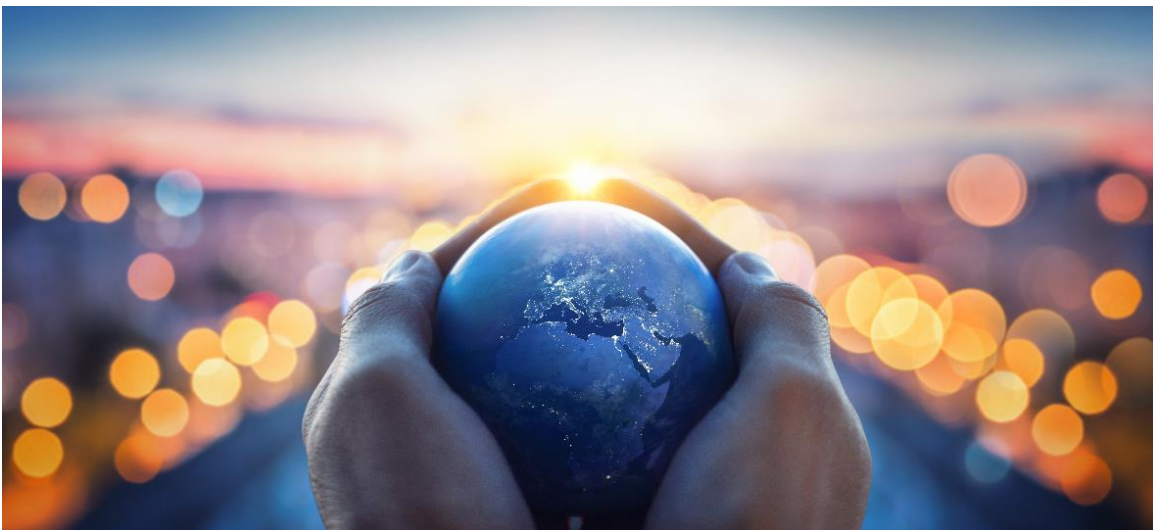
백인규 한국딜로이트그룹 ESG센터장 및 이사회 의장

- ESG 경영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
- ESG 대응 관련 감사위원회 글로벌 현황
- 이사회의 현 ESG 거버넌스는 ESG 경영 초기 단계에 임시방편적 조직 개편과 구성으로 과도적 특성을 보이나, ESG 경영의 내재화와 고도화 단계를 거치며 명확한 영역과 기능 분담 하에 작동하는 기존 감독 거버넌스의 근간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체계를 갖춰 나갈 것으로 예상

Session 2 -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과 역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국내외 기업 지배구조 사례 비교 및 설명
- 기업지배구조 평가체계 설명
-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개정되며 지속가능성 추구, 주주 이익 보호, 최고경영자 승계, 기업집단 소속 이사회 역할 등 이사회의 역할·책임을 강화하고, 경영전략·위험 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여 적극적인 ESG 경영을 유도
- K-거버넌스 문제의 핵심 제시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상장회사협의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온라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12월 31일 (1년간)	신청하기
장소	온라인 수강	
참가대상	회원사 임직원 등(비회원사 수강 불가) * 별도 홈페이지 가입없이 신청 접수 후 수강	QR 코드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p>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과 함께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입니다.</p>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 Seoul Conference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5~6일 (종일)	신청하기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참가대상	감사 및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접수 (유료)	QR 코드																		
프로그램	<p>Day 1: 2022년 10월 5일</p> <table border="1"> <tr> <td>Session 1</td> <td>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Sustainability Reporting</td> <td>EY 주관</td> </tr> <tr> <td>Session 2</td> <td>Global Ownership in 2022</td> <td>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주관</td> </tr> <tr> <td>Session 3</td> <td>TBC</td> <td>DRRT 주관</td> </tr> </table> <p>Day 2: 2022년 10월 6일</p> <table border="1"> <tr> <td>Session 1</td> <td>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for Corporate Resilience and Growth</td> <td>Deloitte 주관</td> </tr> <tr> <td>Session 2</td> <td>Meeting Global Standards for Investor Engagement</td> <td>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 주관</td> </tr> <tr> <td>Session 3</td> <td>Green Crim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td> <td>Refinitiv(레페니티브)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의 사업부) 주관</td> </tr> </table>	Session 1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Sustainability Reporting	EY 주관	Session 2	Global Ownership in 202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주관	Session 3	TBC	DRRT 주관	Session 1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for Corporate Resilience and Growth	Deloitte 주관	Session 2	Meeting Global Standards for Investor Engagement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 주관	Session 3	Green Crim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Refinitiv(레페니티브)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의 사업부) 주관	
Session 1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in Sustainability Reporting	EY 주관																		
Session 2	Global Ownership in 202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주관																		
Session 3	TBC	DRRT 주관																		
Session 1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for Corporate Resilience and Growth	Deloitte 주관																		
Session 2	Meeting Global Standards for Investor Engagement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 주관																		
Session 3	Green Crime: A Threat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Refinitiv(레페니티브) (LSEG(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의 사업부) 주관																		

V. 주요 행사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Company Challenges in a Fragmenting World』 웹 세미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0월 21일 12:00 AM KST	신청하기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QR 코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vid Petraeus (前 중앙정보부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국장, 미국 육군 예비역 장군) David Miliband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회장 및 CEO, 영국 前 외무부장관) Koushik Chatterjee (Executive Director, Chief Financial Officer(CFO), 타타스틸) (사회자) Rana Foroohar (글로벌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파이낸셜타임즈, 글로벌 이코노믹 애널리스트, CNN)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웨비나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상되는 이사회의 도전과제에 대해 하기의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지정학적 요인에 어떻게 직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공급망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 기후변화/지속가능성 계획이 구체화되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보장할지 여부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신뢰 및 ESG』 웹 세미나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16일 1:00 AM KST	신청하기
장소	Zoom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QR 코드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ndra Sucher 교수 (하버드 경영대학원 Management Practice 교수, Edelman Trust Institute 자문 이사회 멤버, 'The Power of Trust: How Companies Build It, Lost It, Regain It' 저자) Sandy Boss, Senior Managing Director and Global Head of Investment Stewardship, BlackRock (사회자) Sharon Thorne (Deloitte Global Board Chair)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 규제기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에 집중되는 가운데 기업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 조직이 고객, 주주, 직원과 여론의 신뢰를 강화하며 조직의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유의미한 ESG 아젠다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뢰 구축 및 유지 방법에 대해 학습한 교훈 검토 최근 ESG 및 신뢰에 대한 Frontier 서베이 결과도 살펴볼 예정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사원

Staff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hyunjihwan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